지상백고좌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계율호지, 견성성불로 가는 출발선”

〈戒律護持〉 〈見性成佛〉



태허 무관 대종사는… 1959년 출가해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희섭 스님.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무관 스님은 지관 스님 전강제자로서 승가교육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과 율주,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법계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전계대화상으로서 불법홍포와 종풍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해인총림 해인사가 한국불교의 종찰(宗刹)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국난극복의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엄정한 가풍이 살아 있는 선원(禪院)이 있어서이기도 하며 치열한 공부가 이어지는 강원(講院)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율원(律院)이다. 당당하게 총림(叢林)을 지키는 하나의 기둥으로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해인율원이다.

해인율원(海印律院)은 성철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자운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했다. 스님이 해인사에 ‘천화율원’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했고 1968년에는 자운 스님의 원력을 이어 받은 일타 스님이 해인사 극락전에서 5명의 스님들에게 〈사분율〉을 강의하며 율원의 토대를 닦았다.

마침내 1977년에 일타 스님을 율주로 현대 한국불교 최초의 총림율원인 해인율원을 설립한다. 그 후 수많은 수행자들이 해인율원에서 계율(戒律)을 연찬했고 전국의 사찰로 나아가 후학들을 키워냈다.

해인율원의 가장 큰 자랑은 자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자포살(自恣布薩)을 현대불교 최초로 발의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자자포살은 지금도 한국불교 수행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식이다. 자운 스님의 상좌이자 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었던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면서 종단 주요제도로 확립했다.

선교율(禪敎律)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이듯이 해인총림은 율원이 가동되면서 총림으로서 완전체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유독 추웠던 겨울 안거의 해제를 앞두고 해인율원으로 향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가 주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계대화상은 종단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또한 당연직 계단위원장 소임을 맡으며 계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계단위원을 위촉한다.

무관 스님은 2020년 12월부터 전계대화상을 맡고 있다. 1차 임기가 끝난 지난해 말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전계대화상에 추대돼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스님은 해인총림의 전계사(傳戒師)를 맡고 있기도 하다.

戒와 律, 수행의 근본

오랜만에 들어선 율원은 여전히 꼿꼿했다. 기세등등하던 겨울 추위가 발붙일 생각도 못 할 정도다. 당당하게 서 있는 ‘해인율원(海印律院)’ 현판 양옆으로 일타 스님의 글씨가 춤을 추고 있다.

마승 비구의 위의를 익히고(習馬勝之威儀)
우바리 존자의 궤범을 배운다
(學婆離之軌範)

마승 비구가 누구인가? 위의가 얼마나 단정했으면 사리불과 목건련이 그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귀의했을 정도였다.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지계제일(持戒第一)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수행자다. 해인율원의 가풍과 지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글씨다.

큰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단 말에
영어사전 들고 입산…3일 만에 출가
탄허, 월운 스님 등에게 경전 배워
자운율사에게 戒學 수학…계맥 이어

“불교공부 기본은 戒定慧 배우는 것
계율로 선정을, 선정은 지혜 이끌어
계율, 수행의 근본이자 부처님의 行”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율원 안쪽으로 더 나아갔다. 율원채인 극락전 주련 글씨를 보며 단단하게 마음을 붙잡는다.

지금 이 몸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自從今身至佛身)
굳게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아니하리니
(堅持禁戒不毁犯)
바라옵건데 제불께서 증명하소서
(唯願諸佛作證明)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내 물러나지 않으리
(寧捨身命終不退)
제가 지난날 지은 죄업들(我昔所造罪惡業)
하나같이 하염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았네
(皆由無始貪嗔癡)
종신토록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죄
(終身口意之所生)
모두 제가 지금 다 참회합니다.
(一切我今皆懺悔)

석주 스님이 ‘율장입지게(律藏立志偈)’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추상같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율원 내 청백당에 위치한 무관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강사이자 대율사인 무관 스님의 방은 정말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책이 가득했다.

“부처님 성도 후 설립된 승가는 계율에 의해 기본이 성립됐습니다. 우바리 존자의 계율 암송으로 율장이 갖추어지고 중국 도선 율사에 의해 ‘사분율’ 중심의 계단과 전계가 이루어져 면면히 이어 온 율종은 1980년 법난 이후 조계종 단일계단을 자운 성우 대율사께서 설립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불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정혜에서 계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율에 의해서 선정이 생깁니다. 또 선정에 의해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율은 몸을 단속하고 선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혜가 나오도록 합니다. 계율이 수행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가 양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율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제재가 가해집니다.

계율은 계체(戒體), 계법(戒法), 계상(戒相), 계행(戒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체는 계율의 근본입니다. 계법은 변하지 않는 법을 말하고 계상은 계율의 조목입니다. 계행은 계율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위의(威儀)는 예법에 맞게 위엄이 있는 엄숙한 태도나 몸가짐을 뜻합니다.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위의는 계율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근본인 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율은 부처님의 행입니다. 불행(佛行)이 곧 계율입니다.”

삼배를 올리기 무섭게 무관 스님은 계단의 역사와 계율의 의미, 계율의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노트북을 펼칠 시간도 없이 시작된 말씀에 머리와 손과 발이 허공에서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렸다. 손님이 온다고 무관 스님이 미리 내려 보온병에 담아 두었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나서야 겨우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낼 수 있었다.

오대산과 가야산이 만나는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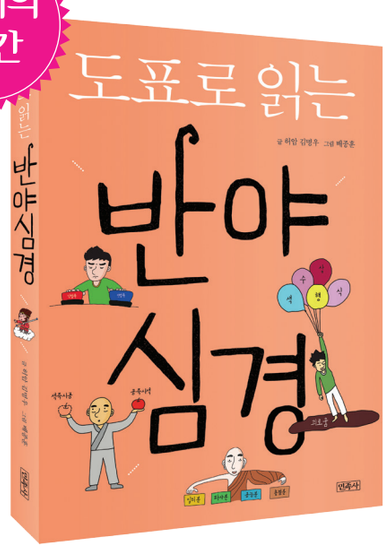
무관 스님의 계율에 대한 관점은 확고했다. 부처님 수행이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 것처럼 사부대중의 정진 역시 확고한 계율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율 경시의 시대’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이었다.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